

## 용산공원 부지 확장 ... 남산-한강 녹지축 연결



▲ 용산공원 완공 후 예상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조성될 용산국가공원의 경계가 확장됐다.

지난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날 제 3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용산공원 북측의 옛 방위사업청 부지(9만5천600㎡)를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했다. 방위사업청 부지 내 토지 1만3천 200㎡는 원래 경찰청 시설 신축 예정이었으나 최근 부지 내 조율을 통해 경찰 시설을 용산역 인근으로 옮기

는 대신 해당 부지를 공원 구역으로 편입했다. 이로써 용산공원 부지 면적은 291만㎡에서 300만㎡로 넓어지게 됐다. 이를 통해 단절된 남산-한강 녹지축이 연결되고, 용산공원 남측과 북측의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부지는 미군이 야구장과 축구장, 골프연습장 등으로 사용하던 공간으로 지금은 넓은 잔디밭 상태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걸어서 접근할 수 있어 향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상반기에는 국민 참여단이 공원 정체성과 주변지역 연계, 역사유산 활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한 국민권고안을 마련한다. 전문가 집단은 공원 내 생태축 구축 등 심층 주제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

2021년 하반기에는 국민권고안과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조성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 8월 장교 숙소 5단지를 개방한 데 이어 2021년에는 잔여 시설 13개 동도 추가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이디어 공모 결과 용산공원의 휴양·피크닉 공간, 야영장 등으로의 활용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 소득 양극화 심화 ... 경제 안정 기반 훼손 우려

소득계층 간 양극화가 확대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지난 21일 발간한 BOK이슈노트 '코로나19 위기 이후 성장불균형 평가'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은 과거 여타 위기에 비해 국가간·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양극화 현상은 중소기업 생산이 줄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매출과 고용이 감소하고 저소득 가계의 소득이 대폭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발 충격은 우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 격차를 벌려냈다. 제조업의 경우 2분기 기준 대기업의 생산지수는 3.7% 감소했지만, 중소기업은 그 2배 이상인 10.2%나 감소했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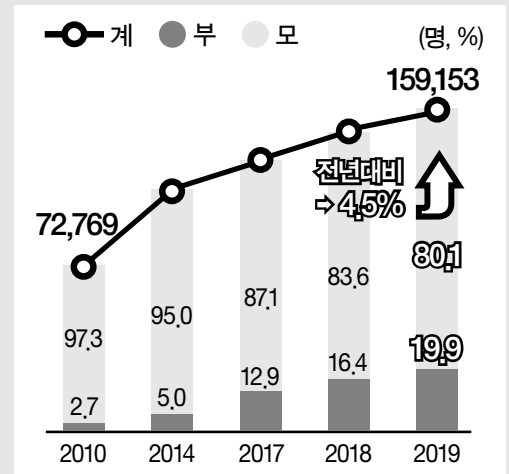
기업 생산지수는 1.9%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4.6% 감소했다.

소득 격차도 더 커졌다. 지난 2분기 하위 20% 가구의 가계소득은 지난해 대비 17.2%나 줄어든 반면,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4.4% 감소하는데 그쳤다. 코로나19가 잠시 진정세를 보이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던 3분기에도 소득 격차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이처럼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큰 점은 소비 회복을 제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향후 경기가 회복되는데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이중 구조 심화, 성장 기회의 불평등을 통해 경제 안정 기반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육아휴직 5명 중 1명은 '아빠'



▲ 전체 육아휴직자 수. 자료=통계청

정부의 '아빠 육아' 장려 정책에 힘입어 남자의 육아 휴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자 휴직 대상자 100명 가운데 실제 휴직 비율은 아직 2명에도 못 미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2019년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한 사람은 15만9,153명으로 2010년(7만2,769명) 대비 2.2배 가까이 늘었다. 육아휴직자 가운데 어머니는 80.1%를, 아버지가 19.9%를 차지했다. 육아휴직은 해마다 증가 추세인데 특히 남자의 육아휴직은 10년 전보다 16배나 급증했다.

육아휴직의 65%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4명 이하인 기업은 3.8%에 불과했다. 남자는 제조업과 공공행정, 여자는 보건·사회복지업과 공공행정 분야에서 육아휴직 비중이 높았다. 육아휴직 제도의 혜택을 대기업과 공무원 재직자들이 상대적으로 잘 누리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해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람 가운데 실제로 쓴 비중은 20%를 조금 넘었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를 둔 남자 육아휴직 대상자 21만7천 명 가운데 실제 휴직자는 4천 명에 불과해 100명 중 2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여자는 자녀가 만 1세 미만일 때, 남자는 만 7세와 8세 때 육아 휴직을 많이 사용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신규 케이스  
상담 접수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